



잠시 명맥이 끊겼던 한국 아티스틱스위밍이 다시 된다. 9일 폐막한 제91회 동아수영대회는 조용한 비상을 알린 무대였다. 임박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 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의 표정이 밝다.

금빛 물살 리허설 “아트다, 아트”

아티스틱스위밍 대표팀 특별 무대 눈길
김소진 “많은 관중…큰 대회 코앞 실감”

닷새간의 열전…한국 신기록도 2개나
여자배영 100m 新 임다솔 MVP 영예

제91회 동아수영대회 최종일 경기가 펼쳐진 9일 광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관중의 이목을 사로잡을 진귀한 장면이 연출됐다.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에 나설 아티스틱스위밍(엡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한국 국가대표 선수 10명이 정글북 음악에 맞춰 물 위에서 ‘칼 군무’를 선보였다. 약 4분 동안 이들의 퍼포먼스를 지켜본 관중, 다 종목 선수, 대

회 관계자들은 연기가 끝나자마자 아낌없는 큰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한국 아티스틱스위밍 대표팀은 2005년까지는 팀 종목 대표 선수들이 있었으나 얇은 선수층 탓에 그간의 국제대회에서 솔로, 듀엣 종목만 나섰다. 이후 지난해 아시아경기에서 13년 만에 단체종목(8명)에 나섰다, 다가올 세계수영선수권에는 솔로, 듀엣, 팀(이상 테크니컬, 프리·팀은 8명), 프리 콤비네이션(10인) 등 7개 세부종목에 선수 11명이 참가한다.

최근 일본오픈(4월), 캐나다오픈(5월) 대회에서 각각 동메달, 은메달(이상 프리 콤비네이션 종목)을 획득하는 등 선수들의 손발은 점점 하나가 되고 있다.

주장 김소진(20·이화여대)은 “작품 완

성도가 높아지고 있어 만족한다. 동아수영대회에서 많은 관중을 보니 세계수영선수권이 코앞이라는 걸 실감한다. 내년 올림픽까지 연이어 큰 대회가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며 닷새 동안 열린 동아수영대회는 세계수영선수권의 테스트 이벤트로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다. 기록도 쏟아졌다. 여자 자유형 50m 정소은(23·서울시수영연맹·25초19), 여자 배영 100m에 나선 임다솔(21·아산시청·1분0초16)은 한국 기록을 새로 썼다. 여자 혼영의 간판 김서영(25·경북도청, 우리금융그룹)도 자신의 취약종목인 평영(100m) 등에 나서 물감을 익히고 구간 기록도 끌어올렸다.

한국 기록 2개를 포함해 총 28개의 대회 기록이 새로 세워졌다. 임다솔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도 대회 내내 경기장 안팎을 점검하며 실전을 경험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동아수영대회를 통해 세계수영선수권 경기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웠다. 미흡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 완벽히 보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 김배중 동아일보 기자 wanted@donga.com

주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대한수영연맹

후원: 광주광역시 협찬: KYOBO 교보생명

〈여자월드컵 프랑스전 0-4〉

개막전 완패 윤덕여 감독
“나이지리아는 꼭 잡아야”

개막전에서 프랑스에 완패를 당한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나이지리아전 필승을 다짐했다.

여자대표팀은 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A조) 1차전에서 개최국 프랑스에 0-4로 완패했다. 강력한 우승후보인 프랑스와의 맞대결이 가혹이나 부담스러운 가운데 대회 공식 개막전이라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한국대표팀 선수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더 큰 점수차의 완패였다. 여자대표팀은 이날 4골을 실점하는 동안 하나의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전혀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전 패배 여파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다. 어차피 프랑스는 애초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상대다.

16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자대표팀은 프랑스전 대패로 남은 2,3차전 결과가 더 중요해졌다. 특히 12일 오후 10시 열리는 2차전 상대 나이지리아는 반드시 잡아야한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1승을 챙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이다.

위기 뒤에 기회라고 했다.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나이지리아를 꺾는다면 승점 3점을 챙기는 동시에 잃었던 자신감까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자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윤덕여 감독도 이 부분에 집중했다. 그는 현지 인터뷰에서 “더 중요한 것은 2,3차전이다. 분위기가 처져 있는데 채신 방안을 잘 생각해서 준비하겠다. 2차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나이지리아전 필승을 다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90분 땀 필요 있었나…벤투호 손흥민 딜레마

풀지 못하는 걸까. 풀 수 없는 것일까. 잠시도 쉽 틈 없는 대한민국 축구 에이스를 둘러싼 의문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은 7일 부산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린 호주와 평가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15년 만에 부산에서 펼쳐진 A매치 현장에는 5만2213명이 찾아와 ‘축구의 봄’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지난해 9월 코스타리카 평가전부터 이어진 A매치 7회 연속 매진이다.

대표팀은 후반 31분 황의조(감바 오사카)의 결승골로 1-0 승리했으나 내용은 썩 유쾌하지 않았다. 전반전에 한 차례 슛도

기록하지 못할 만큼 졸전에 가까웠다. 다행히 후반 교체 투입된 황의조가 골 맛을 봤으나 만족스럽지 못했다.

더욱이 대표팀은 훈련캠프에 합류한지 사흘 밖에 되지 않은 손흥민에게 90분을 뛰도록 해 ‘혹사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 벤투 감독은 “대표팀은 9월 시작할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오늘 경기(호주전)와 이란전(11일·서울월드컵경기장)은 마지막 실전기회다. 중요한 시기에 손흥민의 출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으나 많은 질타는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손흥민의 컨디션은 정상이 아니었다. 유독 긴 2018~2019시즌을 소화한

탓에 힘에 부치는 기색이 역력했다. 2017~2018시즌을 마치자마자 2018러시아월드컵에 나섰고, 새 시즌이 시작한 뒤에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AG)에 출격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는 파이널까지 진출, 2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리버풀과 우승 트로피를 다투었다. 체력이 떨어졌고, 장거리 이동과 시차 적응까지 겹쳤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출전) 상황이 부담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출전을 강행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6월 A매치 시리즈에 참여할 태국전사들을 공개하며 “최고의 선수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 모든 감독들의 당연한 욕심”이라고 벤투 감독은 밝힌 바 있다.

물론 선수 차출과 출전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90분을 뛰게 해야 했을지 아

쉬움이 있다. 벤투 감독은 호주전에서 3장의 교체카드만 썼다. 평가전은 6명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그라운드에 넘어진 채 얼굴을 들이밀며 돌파를 차단하려던 호주 수비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손흥민의 존재감은 확실했지만 ‘얼마간 회복의 시간은 필요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또 시점이 시점인 만큼 다른 선수들의 테스트도 필요하다. 손흥민의 공백에 대한 사전 고민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선수는 아무리 피로해도 코칭스태프에 “뛰기 어렵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 지시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 태극마크에 깊은 애정을 가진 손흥민은 더욱 그렇다. 다가올 이란전은 최근의 열세와 라이벌 의식을 고려하면 보다 치열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정상 컨디션’의 손흥민을 기대하는 건 어려워졌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TRAINING
WEAR
SET

여름을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 반팔·반바지 트레이닝복 세트

썸머 쿨링 트레이닝 **상하 2세트 총4장 39,800원**

1번형
네이비

2번형
그레이

3번형
블루

4번형
멜란지

5번형
블랙

바다, 산, 계곡, 야영장 등 피서지에서 입기에 안성맞춤 시원한 기능성 소재인 쿨링원단 사용으로 체온은 유지되고 땀에 의한 습기는 배출되는 우수한 통기성을 지닌 제품이다. 탁월한 착용감과 땀시리는 핏으로 다양한 활동에 적합하다. 부드러운 원단으로 활동성을 높였고 여러 이터넬과 잘 어울려 다양한 코디를 가능하게 한다. 스포츠 활동 및 일상복으로 여름철에 제격이다. 반바지 또한 신축성·탄력성·복원성이 탁월한 인체 스핀 소재 사용으로 착용감과 통기성이 우수하며 장시간 착용시에도 형태 안정성이 뛰어나 항상 새 옷 같은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다. 허리부분에는 고무밴드 처리로 신축성 있게 만들어져 있으며 스포츠·레저 활동은 물론 일상복으로도 여름철에 착용할 수 있다. 제품 불만족시 100% 교환, 환불 보장한다. 여름맞이 런칭기념 행사로 한 세트 가격에 한 세트를 더드리는 파격행사 중이다.

사이즈 95, 100, 105, 110

상하세트 1 + 1 ₩189,000 → **₩3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쇼핑몰 :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센스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